

碩士學位論文

존 웨슬리의 救援論에 있어서 先行하시는  
恩惠概念 研究

- 칼빈의 이중예정론과 비교하여 -

牧園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李 允 宰

2002年 11月

존 웨슬리의 救援論에 있어서 先行하시는  
恩惠概念 研究

- 칼빈의 이중예정론과 비교하여 -

指導教授: 李 善 喜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1月 日

牧園大學校 神學大學院

神 學 科

李 允 宰

李允宰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委員 \_\_\_\_\_ 印

副審委員 \_\_\_\_\_ 印

副審委員 \_\_\_\_\_ 印

2002년 11월 日

牧園大學校 神學大學院

# 목 차

I. 서 론 .....	1
1. 문제제기.....	1
2. 연구동기와 목적 .....	2
3. 연구방법 및 범위.....	4
II. 하나님의 형상 .....	5
III. 웨슬리의 죄론 : 원죄.....	7
IV. 선행하시는 은혜.....	13
1. 선행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	17
2. 선행의 은혜의 증거와 결과.....	18
3. 선행하시는 은혜의 본질 .....	19
1) 성서적 근거.....	19
2) 역사적 근거.....	20
4. 선행의 은혜로서의 양심 .....	23

V. 웨슬리의 선행하시는 은혜 개념과 칼빈의 이중예정론 개념의 비교.....	26
1. 웨슬리와 칼빈 신학의 형성 배경 .....	26
1) 시대적 배경.....	26
2) 체험적 배경.....	28
3) 신학적 배경.....	31
2. 웨슬리 신학의 특징 .....	33
3. 칼빈 신학의 특징 .....	36
4.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의 일치점 .....	38
5.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의 차이점 .....	39
VI. 웨슬리의 선행하시는 은혜의 신학적 의의 .....	43
VII. 결 론 .....	45

참고 문헌

# I. 서론

## 1. 문제제기

2천년에 걸친 기독교 교회사를 통하여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학들이 존재해 오고 있다. 이 모든 신학들은 기독교 전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 궁극적인 권위를 두고 있으며,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권위의 원천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속의 여러 신학자들은 광범위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는 변화와 혼돈의 시대이다.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것,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라는 끊임없는 자신의 질문에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서조차도 그들의 삶에 표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인간의 구원과 믿음의 문제는 기독교인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요, 중요한 교리가 아닐 수 없다.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무수한 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한 서로의 주장과 논쟁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곤욕에 빠졌고, 신앙생활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반면에 말로 형언 못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서로 다른 신앙체험과 견해들로 인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특별히 “구원론”의 문제는 더욱더 보수적 신학과 자유주의신학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우쳐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들 대부분의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리”하면 단지, 감리교의 창시자, 뜨거운 성령체험한 사람, 체험을 강조 한사람, 영국에서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또한 감리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의 신학자들은 Wesley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삼남지방 일부에서는 감리교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웨슬리의 구원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웨슬리의 구원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체 구원관의 내용—웨슬리의 구원관의 본질적인 핵심—을 잘못 파악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 진리로 삼고 “오직 한 권의 책(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가장 성경에 근접했던 사람 바로 웨슬리를 바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웨슬리의 구원관에서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칼빈의 구원론에서의 절대 예정론과의 비교 분석하려 한다.

## 2. 연구동기와 목적

초대 교회로부터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기독교의 신학의 논쟁들, 이러한 논쟁들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인간 역사가 갖는 모든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신학적 논쟁 속에서도 단지 논쟁 이상의 의미를 가짐을 가리켜 주는 것이 있다. 이는 바로 신앙에 따라 살고자 했던 당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장했던 신학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학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론이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립된 신앙체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이 이러한 본분을 제대로 감당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곤욕에 빠졌고 신앙생활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칫 이러한 것들은 극단적인 데로 치우쳐 버리기 쉬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접근하다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비 성경적인 감정주의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본 나머지 말

씀의 생명력과 진리를 격하시켜 버려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빈곤 상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학의 두 줄기인 웨슬리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을 복음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웨슬리의 신학과 칼빈 신학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확립된 신앙체계이다. 그들이 많은 서적을 연구하고 그 당대의 많은 사상들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것이 그들의 신학의 주류가 된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초대교부들의 사상과 여러 서적들을 연구했지만<sup>1)</sup> 그의 신앙체계의 확립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Oldersgate)의 체험에서 비롯된다.<sup>2)</sup> 칼빈 역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비롯된다.<sup>3)</sup> 즉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확립된 신앙체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두 신학을 다른 신학보다 성서적 신앙체계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웨슬리와 칼빈은 많은 부분에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웨슬리 자신이 그의 편지에서 언급하기를 “나는 과거 27년 간 의인론에 있어서 칼빈과 터럭만큼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sup>4)</sup> 최근에 신학의 흐름은 웨슬리의 신학과 칼빈 신학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두 신학의 공통점을 찾고 이들의 일치점을 확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한 웨슬레의 재발견」을 저술한 셀(Cell)은 “우리가 웨슬레의 가르침과 설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웨슬레의 신학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재인식과 재발견이었다.”<sup>5)</sup>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아래 칼빈신학의 형식 구성원리 중에 “일치라고는 하나 혼합은 아니다. 구별이기는 하나 분리는 아니라.”<sup>6)</sup>는 표제가 있다. 이 말은 진리

---

1) 송홍국, 「요한 웨슬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0), 56.

2) 조종남, 「요한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1-56.

3)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18-23.

4) G.C. Cell, 「요한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56-157.

유진형,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과 그 현대적 의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5: 11에서 재인용.

5) G.C.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57.

6)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0), 244.

이정구, “칼빈신학과 웨슬리 신학의 구원론 비교이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구명에 있어서 혼합보다는 일치에, 분리보다는 구별에 그 중요성이 있음을 밝혀 준다. 케논박사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웨슬레의 신학이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신본주의 신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칼빈이나 어거스틴과 다름없다.”<sup>7)</sup>고 말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웨슬리의 구원론에서의 선행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다. 단, 웨슬리의 구원론과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을 좀더 세부적으로(웨슬리의 선행의 은혜와 칼빈의 예정론 중심) 이 두 신학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웨슬리의 선행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선행하시는 은혜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칼빈신학의 예정론과 비교 고찰하되, 연구방법과 범위는 웨슬리의 설교와 저서들, 칼빈의 저서들과 그에 대한 서적을 주 자료로 삼아 연구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학자의 견해를 보조자료로 삼는다.

먼저 I 장에서는 문제제기와 구원론의 중요성 연구동기와 목적 및 연구방법과 범위를 피력하고, II 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III 장에서는 웨슬리의 죄론에서 원죄에 대해 알아보고, IV 장에서는 선행하시는 은혜와 선행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과 선행의 은혜의 증거와 결과, 선행하시는 은혜의 본질로 성서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과 선행의 은혜로서의 양심을 살펴보고, V 장에서는 웨슬리의 선행하시는 은혜 개념과 칼빈의 이중예정론의 개념을 비교분석 함으로 웨슬리신학과 칼빈신학의 형성 배경과 두 신학의 특징 및 일치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VI 장에서는 웨슬리의 선행하시는 은혜의 신학적 의의를 피력하고 VII 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1999: 8에서 재인용.

7) 위의 책, 8.

## II.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

웨슬리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창 1:26), 그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했었다.<sup>8)</sup>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형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기전 인간의 영혼 속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sup>9)</sup> - 인간이 부여받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질적 형상’(the natural image), ‘정치적 형상’(the political image), ‘도덕적 형상’(the moral image)이다.

첫째, 본질적 형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불멸성을 본받은 형상인 그의 본질적 형상에 있어서 인간은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과 또한 이 세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썩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피조되었다.

둘째, 정치적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형상인 정치적 형상에 있어서 인간은 이 땅위의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피조되었다.

셋째, 도덕적 형상은 인간이 무엇보다도 ‘의와 진정한 거룩함’의 형상인 도덕적 형상으로 피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고 죄도 없었고 악도 알지 못하였다.<sup>10)</sup>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에 그 전 인적으로 일치하므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그의 조물주를 창조주로 알아보며, 사랑하며, 순종함으로써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자유(liberty) 또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적 자유(freedom of choice)를 부여하셨다. 인간이 지닌 원초적 완전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1)</sup> 이 선택의 자유라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 받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인간도 진흙이

---

8) 이선희, “기독교 대안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53.

9) 창세기 1:27.

10) 위의 책.

11)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9), 78.

나 돌 조각 이상으로 조물주를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의로우며 거룩하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범죄 하여 거룩하지 못하다든지 하시는 말씀이 무의미했을 것이다.<sup>12)</sup>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모든 것의 창조자가 긍휼하신 것처럼 긍휼하고 그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도 그의 안에 살아 계셨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되도록 지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썩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아무런 죄의 더러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죄 없이 순결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되신 그의 하나님을 사랑했다.”<sup>13)</sup>(막 12:30)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었다.

---

12) 이선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54.

13) 존 웨슬리, “믿음에 의한 칭의”, 마경일, 송홍국역 「총서」 제1권, (서울: 신교출판사, 1978), 81.

### Ⅲ. 웨슬리의 죄론

#### 1. 원죄(Original Sin)

‘性善說’ 혹은 ‘性惡說’ 어느 것이 맞는가? 지금도 세계곳곳에서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저지르는 잔인하고 끔찍한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류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반드시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하는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웨슬리는 인간이 애초부터 악하게 지음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온 인류도 타락하여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간의 전적타락을 주장한다.

“사람이 본래부터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입니까?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입니까?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긍정한다면 당신은 그만큼 기독교인이며, 부정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sup>14)</sup>

웨슬리는 인간의 ‘원죄’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여기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기독교와 異敎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의 “원죄”(Original Sin)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서는 ‘한사람의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한다.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찬 아담은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다.”<sup>15)</sup>

---

14) John Wesley, “Original Sin” 「The Works of Wesley」 Vol. 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184. (이하 「Works」라고 표기함)

15) 위의 책 173.

성서는 우리가 죄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므로 죄의 행위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인간성에 결함이 없고 완벽한 것처럼 거창하게 표현한다.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와 같이 덕과 지혜와 선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로 보았다. 하지만 웨슬리는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고 보았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선택의 자유를 오용하여, 창조주의 뜻을 따르기 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본질적 형상’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형상’은 왜곡되었다. 여기서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어리석음과 불행이 시작되었다.<sup>16)</sup> 아담이 범죄 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중생 전에는) 죄의 세력 하에 종노릇하므로 그의 자유의지를 선한 쪽으로 쓰지 못한다.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성 자체로는 오히려 전체적인 화를 자초하게 할 뿐이었다. 인간은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었다”<sup>17)</sup>고 말한다.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실상 소멸되었다.<sup>18)</sup>

웨슬리가 말하는 자연인의 상태는 전적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면에서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sup>19)</sup>

웨슬리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비관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죄의 실재와 위협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이 이 범죄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순간에(창 3:1-6) 죄의 존재 (being of sin)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이 죄짓게 하는 세력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

---

16) 이선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54.

17) John Wesley, “Original Sin”, 173.

18) 스티븐 하퍼, 「존 웨슬리의 메시지」, 김석천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8), 30.

19) 유진형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과 그 현대적 의의”, (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5), 32.

하였고, 이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 왔다(롬 5:12). 그리하여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가 온 인류에게 임하되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전가된다. (1) 우리의 몸은 가멸적이 되었다. (2)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3) 우리 모두는 죄악 되고 악마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4)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롬 5:18, 엡 2:3)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존재와 세력의 지배 하에 종노릇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까닭에 그 기질과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여 본성상 악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짓게 하는 세력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절대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부패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뿌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과 자기고집이 나오고 여기서 허영, 야심, 탐욕, 정욕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분노, 증오, 악의, 복수, 선망, 질투, 시기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망이 나온다(롬1:18-31)<sup>20)</sup>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만든다, 그는 타락을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21)</sup>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안전과 평화에 대한 거짓된 감각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다. 웨슬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게도 깨우침을 받지 못한 죄인은 그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타락한 영혼임을 알지 못한다. 그 자신은 질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신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망상을 갖는다.”<sup>22)</sup>

인간은 자신이 타락한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알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독립적 망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20) 이선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68.

21) 존 웨슬리, “신앙에 의한 칭의”. 「총서」 제1권, 83.

22) 존 웨슬리,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총서」 제1권, 44.

웨슬리는 영적 죽음을 악한 뿌리로부터 뺀어 나온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이 가지는 불신, 방종, 자만, 허영, 야망, 탐심, 음욕, 분노, 질투, 슬픔 등의 열매를 맺는다.<sup>23)</sup> 인간은 그의 영혼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우리자신들만으로는 전혀 죄와 공허의 덩어리요 혼란과 무지와 잘못이 우리의 이해를 지배하고 있으며 불법하고 세속적이며 관능적이며 악마적인 정열이 우리의 의지에 권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전혀 건전한 부분이 없으며 우리의 성질의 모든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sup>24)</sup>

자연적 상태의 인간 본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언제나 같고 매년 매일 매순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인간은 결코 선을 지향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25)</sup>

인간의 현실은 모두 마음이 부패하고 보기 흉하다.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다.<sup>26)</sup>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로부터 배우게 되었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하며 능력 있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되었다.”<sup>27)</sup>

---

23) 존 웨슬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총서」 제1권, 119.

24) 존 웨슬리, “마음의 할례”, 「총서」 제1권, 210.

25) John Wesley, “Original Sin”, 176.

26)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82.

27) John Wesley, “Original Sin”, 177.

다시 말해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그릇 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죄의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sup>28)</sup>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사랑의 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기 자신을 예배한다.<sup>29)</sup>

“교만에서는 다름, 허장성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구하고 받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는 주실 수 없는 영광을 빼앗는 일이 발생한다.”<sup>30)</sup>

웨슬리는 모든 교만을 이상숭배로 간주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이다. 인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부패한 인간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은 덕스러운 마음의 표시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예에 만족하는 것을 악한 마음의 표시로 생각한다<sup>31)</sup>. 심지어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부패하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성의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까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에 전혀 무지하였다. 마틴 슈미트는 “웨슬리의 결론인즉 기독교와 이교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죄의 보편성에 대한 교리에 있다는 것이다.”<sup>32)</sup> 죄의 보편성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속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참상을 이해하는 것이 웨슬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웨슬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은 아무것도 없다.”<sup>33)</sup>고 말했다. 그러면 왜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

---

28) John Wesley, "Original Sin", 178.

29) 위의 책, 179.

30) 존 웨슬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총서」 제1권, 119.

31) John Wesley, "Original Sin", 182.

32) Steve Harper, 「웨슬리의 메시지」, 신광준역 (서울: 도서출판 웨슬리, 1986), 17.

33) 위의 책.



가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서 원죄의 유전 문제가 발생한다. 원죄가 유전된다는 이유에 대해 웨슬리는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시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죄의 유전에 대하여 1774년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문) 어떤 의미에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미치는가?

답)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즉 1) 우리의 육체가 이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2)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되었다.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3) 이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악된 악마적 성품을 타고나게 되었다. 4)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sup>34)</sup>

웨슬리도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온 인류도 타락하여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간의 전적타락을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타락하고 부패하였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모든 죄인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인간 자체에게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희망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으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전능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여 선을 원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다면 자기들을 창조한다든지 혹은 자기들의 전 영혼의 의와 참된 기록에도 갱생케 한다든지 하는 일이 인간에게 불가능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의 좋은 생각까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35)</sup>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초자연적인 빛인 하나님의 은혜 곧 선행의 은혜인 것이다.

---

34) Albert Outler, 'John Wesley', 138-139.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89-90에서 재인용.

35) 존 웨슬리 “마음의 할례”, 송홍국역 「총서」 제1권, 210.

#### IV. 선행하시는 은혜(Preventing Grace)

만약 웨슬리가 인간의 죄의 교리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물 한 방울 없는 뜨거운 사막, 끝없는 죽음의 모래 사막 한 가운데 이제 지쳐서 쓰러져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희망 없이 버려진 사람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웨슬리는 그 사람의 얼굴에 투쟁과 고뇌의 흔적을 그려 넣을 것이다. 웨슬리는 상황이 전적으로 절망적임을 보여 주려고 할 것이다. 그 그림은 글로 쓰여있지 않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의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깨고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것이 선행의 은혜인 것이다.

웨슬리는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아담이후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인간의 희망 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어 그는 어느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뒤지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적 은혜의 개념을 통하여 그는 종교개혁자들을 넘어선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 예수의 대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 대속의 첫 번째 결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말한다. 이 결과로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이거나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보았다.<sup>36)</sup> 구원의 과정에서 은총의 역사는 선행하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개혁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사상이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인간 안에서가 아닌 밖으로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웨슬리의 구원관에 있어서 은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개념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웨슬리가 선행의 은혜를 말할 때 회심의

36) 유진형,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과 그 현대적 의의”, 32.

경험이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선행의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거나 필요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미리 활동하신다는 뜻이다. 성서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찾아온 은총이다(롬 5:8). 웨슬리의 신학에서 이 은총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의 은혜에서 선행(pre)이란 말은 “보다 앞서, 먼저 행하는”이라는 뜻이다.<sup>37)</sup> 그러면 무엇보다 앞에 온다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전을 말한다. 선행의 은혜 교리를 통하여 웨슬리는 먼저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 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웨슬리는 말했다.<sup>38)</sup> 선행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관한 모든 망상을 제거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기까지 인간이 잘 행할 수 있거란 불가능하다.<sup>39)</sup> 그렇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도 불가능한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불러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웨슬리는 선행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선행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감지력을 창조한다.

둘째, 선행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작으면서도 일시적인 가책을 일구어낸다.

셋째, 선행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첫 소원을 일으킨다.<sup>40)</sup> 웨슬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한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선행은혜의 활동 자체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았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선행의 은혜는 이 세상에

37) 오세호,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구원개념”, (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1996), 14.

38) 하퍼 「존 웨슬리의 메시지」, 40.

39) 위의 책, 41.

40) Thomas Jackson *'The Work of John Wesley'* (Grand Rapids: Baker, 1979), 509.

위의 책 42에서 재인용.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sup>41)</sup>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빛에서 볼 때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첫째, 선행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grace for all*)이다. 선행의 은혜에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웨슬리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벧후 3:9)고 말한다.

둘째, 선행의 은혜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은혜(*grace in all*)이다.<sup>42)</sup> 하나님의 은총을 닮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선하고, 고상하고, 순수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은혜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자신의 범죄 하에 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는 영원한 죽음에 해당되는 죄들을 스스로 범했음을 자인하고, 이 죄책에 대가를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정결케 되는 것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칭의를 통하여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줄 수 있고, 성화를 통하여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마 11:28)

실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이것에 일치(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에 자신을 맡기라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룩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웨슬리는 선행의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처음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든지 혹

---

41) John Wesley, "On Conscience" 「Works」, Vol III, 482.

42) 하퍼, 「존 웨슬리의 메시지」, 43.

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쁘시게 하는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적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행진을 암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요 눈멀고 무딘 마음 즉,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초기 단계입니다.”<sup>43)</sup>

또한 선행적 은총이라 함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교화하시는 빛이요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시하시는 것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선행적 은총이란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를 말한다.<sup>44)</sup>

하나님이 이렇게 선행의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행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시며,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웨슬리는 주장한다. 다시 말해 죄인인 인간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이다. 인간을 원죄 하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닌 듯이 착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시므로 이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써 값없이 손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부른다 비로소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하고 회미하게나마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일시적으로나마 자기의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도 느낌이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살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최초로 동터오듯이 생긴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

43)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Works」, Vol III, 203.

44) John Wesley,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Works」 II, 156 157.

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하여 건짐을 받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이다. 선행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회개이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1. 선행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

1) 선행의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선행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하심이요,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또한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 하시어 깨닫게 하시는데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sup>45)</sup> 선행의 은혜는 성령의 활동이며 이끄심이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

2)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진다.

웨슬리는 선행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근거가 제시된 것이라고 하였다. 은혜로 인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인간구원 활동에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 주권에 의해 구원이 시작된다. 우리 자신의 구원은 선행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소원, 즉 선한 의욕이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구원개념에서 이 선행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웨슬리 당시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18세기 영국 교회의 구원론이나 이신론의 이성적 도덕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sup>46)</sup>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사 생령이 되게 하셨으며,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

45) 위의 책, 157.

46)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2.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도 역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자비의 표적입니다. 사람 안에 어떤 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sup>47)</sup>라고 그의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말하고 있다.

### 3) 선물로 주어진다.

웨슬리에 의하면 인간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구원론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다. “사람 안에서 어떤 의가 발견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sup>48)</sup>이라고 함으로써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치러야 할 값이나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인간이 해야하는 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직 인간의 요구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인 것이다.

## 2. 선행의 은혜의 증거와 결과

“모든 사람이 시력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난다면, 그 결핍을 자각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해력이 자연적인 맹목상태에 머무는 한, 자신의 영적인 결함, 더욱이 이해력의 결함에 대하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의 눈을 밝혀 주실 때, 인간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태에 대하여 자각하게 된다.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본성적으로 ‘모든 것이 헛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즉 모두 우매하고 죄스럽고 사악하다는 것이다.”<sup>49)</sup>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sup>50)</sup>

“또한 이 선행적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자연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심을 가리킨다. 사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최초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47) John Wesley, "Salvation by Faith", 「Works」, Vol I, 118.

48) 위의 책, 134.

49) John Wesley, "Original sin", 176-177.

50) John Wesley, "Salvation by Faith", 126.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최초로 동이 터 오듯이)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적 은총에 의한 것이다.”<sup>51)</sup>

위에서 밝혔듯이 선행의 은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최초로 동터오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의 은혜는 인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 3. 선행하시는 은혜의 본질

#### 1) 성서적 근거

선행의 은혜는 웨슬리에게는 성서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말 자체는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선행하시는 은혜의 개념은 성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 마치 ‘삼위일체(Trinity)’라는 말이 성서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성서적 가르침과 진리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선행하시는 은혜’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Free Grace)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은 보편적인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요한 서신에서 빛이라고 언급된 것도 그리스도의 선행적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요 1:3-10, 3:19-21)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선행의 은혜를 의미한다.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 지식,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 선과 악에 대한 부분적 지식,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 선과 악에 대한 부분적 지식, 양심 등이 모두 선행하시는 은혜의 작용의 결과라고 보았다.(롬 2:12-14)

웨슬리는 “자연적 양심”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가진 양심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

---

51)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107.



약성서의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간주하였다.

선행하시는 은혜의 시작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직후로부터 보았다. 창세기 3:15에 있는 “최초의 복음”은 구원의 약속이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범죄한 그 직후에 구세주를 약속하심은 인간에게 미리 주신 은혜이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총은 시작하였다. 즉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도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행 14:16-1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행 17:27)이라는 구절들이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sup>52)</sup>. 선행의 은혜에 대한 개념은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그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

## 2) 역사적 배경

한 사람의 논리적 사상이나 학문적 성향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표출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 또는 학문적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영향들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웨슬리의 선행의 은혜론도 웨슬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 사상들이나 신학적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웨슬리가 선행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웨슬리 이전에 있었던 선행의 은혜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은총이란 용어가 신학적으로 구체적 개념을 지니게 된 것은 초대와 중세교회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 터툴리안(Tertullian)은 오직 탁월한 하나님의 영감만이 선행적 은총을 얻고 또 실현하기에 적합하게 하신다고 하였다. 그 외에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와 그의 제자 오리겐(Origen), 키프리안

---

52)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108-109.

(Cyprian) 등의 교부들도 선행적 은총은 선을 향한 인간 본래의 타고난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크리스툼(Chrysostom)은 거저 주시는 은총(Free grace), 은총에 대한 응답의 필요성, 은총 안에서의 성장과 퇴보, 그리고 은총의 보편성 등의 개념을 주장한다.<sup>53)</sup>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한사람인 어거스틴도 선행은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은총은 인간이 선을 행하기 이전에 선행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재하는 은총에 뒤따른다고 보았다. 즉 신앙을 결단하는 의지보다도 은총의 부르심이 앞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이 앞서고 믿음이 결과로 일어나고 선을 행할 의지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은총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웨슬리의 선행의 은혜 개념과 유사한 학자로는 16세기 화란 신학자 아르미니우스(Jemes Arminius)였다. 그는 연구 결과 칼빈과 베자의 예정론이 성서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칼빈주의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의 사후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1610년에 화란 의회에 5개조의 “항의문”을 제출하였다. 이 항의문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그 바탕이 되어 있다. 아르미니안의 5가지 주장은 1)예지에 기초한 조건적 선택, 2)인간의 개인적 믿음에 의해 제안되는 만인구속설, 3)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연적 무능력, 4)선행 은총-인간의 선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죄인들의 사악한 의지에 의하여 거부되어지고, 따라서 그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 5)조건적 견인-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주실지라도, 인간이 이것을 무시하고 은총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sup>55)</sup> 에서도 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몇몇의 학자들은 웨슬리의 선행의 은혜 개념이 동방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으로 주장한다. 웨슬리는 루터의 노예 의지론에 기초한 수동적 의와 경

---

53) 위의 책, 109 110.

54) 이성주, 「웨슬리 신학」, 한철하, 「고대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298 299. 위의 책110에서 재인용.

55) Mildred Bangs Wynkoop, 「칼빈주의와 웨슬리신학」, 한영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58.

건만을 말하지 않고, 동방교부의 영향으로 자유의지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강조하는 복음적 신인협조설(evangelical synergism)을 주장하였다.<sup>56)</sup> 또한 동방교부들의 사상인 은총에 응답하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였으며,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믿음을 주장했다. 인간의 의지적 참여인 사랑의 행동이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한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웨슬리가 받아들인 것이다.<sup>57)</sup>라고 주장한다.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다. 인간의 공로는 있을 수 없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과 성실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100%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편에서 의지적 결단이나 참여를 말하고 있다.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매 단계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4:5)는 말씀처럼 인간이 거룩하게 되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이다. 웨슬리는 “우리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대하여”라는 설교에서 “모든 선한 의욕과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sup>58)</sup>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활동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인간은 외부세력에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sup>59)</sup>라고 말한다.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이 은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의미한다. ‘협력(work together)’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다. 그는 ‘칼빈주의자들과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능력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

56) 김홍기, 「세계기독교의 역사 이야기」 (서울: 예루살렘, 1992), 203.

57)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89.

58)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203.

59) 존 웨슬리,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 송홍국 외 3인역, 「총서」 제9권, 333.

문이다.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는 것이다.”<sup>60)</sup>

웨슬리에게 있어서 “협력(work together)”은 위에서 언급된 동방교부들이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의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지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적 참여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리교인은 혼자 있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든, 쉬고 있든, 일을 하든, 대화를 하고 있든 그의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눕든,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이처럼 형성되면, 그의 마음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중략...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모조리 제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순종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sup>61)</sup>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협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순종이요 협력인 것이다.

#### 4. 선행의 은혜로서의 양심

양심이 모든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sup>62)</sup>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인 양심을 받았다. 사람이 이것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이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선행의 은혜로 주어진

---

60) 위의 책, 340.

61)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365일 묵상집」, 이병희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1), 55.

62) John Wesley, "On Conscience", 482.

하나님의 선물이다. 웨슬리는

“양심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선행적 은혜이다. 모든 사람들은 많건 적건 이 선행적 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sup>63)</sup>

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양심은 선행은혜의 증거라고 보면서 양심과 선행의 은혜를 동일시한다. 양심의 의미는

“양심이라는 말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어 넣으신 ‘능력 혹은 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심의 능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활, 기질, 사고, 발언, 행동 가운데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sup>64)</sup>

이런 양심의 가책 현상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일종의 깨달음과 뉘우침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 그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초보적으로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선행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다. 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sup>65)</sup>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지시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인간은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을 저 버리는 것이고, 이는 곧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이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밖에 없는데, 그것은 복종”<sup>66)</sup>이라고 웨슬리는 말한다. ‘양심’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며, 우리는 선행은혜의 불꽃으로 타올라야 한다.

---

63) John Wesley,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207.

64) John Wesley, *"The Witness of Our Own Sprite"*, Vol I, 302.

65) 이선희, “John Wesley의 선행은혜(Preventing Grace)개념에 대한 소고”, 116.

66) John Wesley, *"On Conscience"* , 487.

양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은혜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선행의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행의 은혜로 양심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인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립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웨슬리가 그의 설교 '믿음으로 얻는 義'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의한 의를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선행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적 기능들 위에 더하여 주시는 초자연적 선물이다.

## V. 웨슬리의 선행하시는 은혜 개념과 칼빈의 이중예정론 개념의 비교

### 1. 웨슬리와 칼빈 신학의 형성 배경

#### 1) 시대적 배경

웨슬리(John Benjamin Wesley, 1703-1791)는 영국의 동부에 위치한 링컨(Lincoln)주에 있는 엠퍼드(Epworth)라는 마을에서 1703년 6월 13일에 태어났다.<sup>67)</sup> 존 웨슬리는 18세기 전 기간에 걸쳐 생존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시대였다. 오랜 기간의 종교전쟁에 시달려 오면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정신은 퇴색되어졌으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와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제2의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시대였다.

당시의 성행하던 이신론(Deism)은 자연신론이었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겪은 오랜 기간의 종교전쟁에 시달린 지식인들은 종교를 철저히 합리적인 인간의 태도를 제시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이성의 시대의 출현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계시종교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발견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인간의 힘으로 발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의 기본적인 명제들을 문제삼기 시작했다.<sup>68)</sup> 진리탐구에 있어서 전통과 외적 권위보다 인간 이성의 권위에 더 중점을 두었다.<sup>69)</sup> 학문의 권좌에 앉았던 신학은 이성에 그 자리를 양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신론은 “일종의 자연종교의 체계로서 초월적인 신을 주장하되 그 신은 창조주일뿐, 이 세상의 과정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며, 우주나 세상은 그 자체의 운명에 일임되었다고 믿었다.”<sup>70)</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나 기사 이적 등의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았다. 따

67)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서울: 도서출판 잠언, 2002), 18.

68) 윌리엄 케논, 「웨슬레 신학」, 남기철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15 16.

69) 송홍국, 「웨슬레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5.

70) 조종남, 「요한 웨슬레신학」, 52.

라서 이들 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자연주의화 하는데 주력하고,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당대의 종교가들은 ‘계시와 이성의 조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앙을 이성에 예속시키는 일을 강조하였다.’<sup>71)</sup> 또한 이러한 합리주의가 당시의 정통 신학계에도 침투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란 신의 재가를 받은 도덕체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정도였다.”<sup>72)</sup> 성직자들은 서민보다는 지식층, 대지주층, 신사층과 결탁하였다. 즉, 교회는 이성의 시대의 세력들과 결탁했고 그 결과로 옥스퍼드의 감독인 ‘세가’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게 되었다.”<sup>73)</sup>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사회였다. 야비한 경기와 음주가 만연되어 거리의 집들 중 사분의 일이 술집일 정도이었으며<sup>74)</sup> 불법과 범죄가 급증하였다.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노예매매가 장려되어 1776년에는 그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sup>75)</sup>

이처럼 웨슬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와 인간의 책임 태만으로 말미암아 부도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칼빈은 중세 천년 동안 이어져온 기독교 봉건체제 14세기부터 시작된 인문주의 영향으로 새 역사의 태동이 시작되던 때인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sup>76)</sup>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교황권이 교차되는 중요한 시기였고, 사회적으로는 상공중산층이 발흥하는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의 실추 및 부패로 인한 교회 개혁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고전문헌을 연구하던 인문주의의 영향이 대두된 시기였다.

정치적 상황은 교황과 주교들이 중심이던 교권과 교권 통제하의 정치형태에서 벗어나려는 세속 통치권과의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였다. 인문주의(Humanism)의 영향으로 로마교회가 가졌던 절대지배권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주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

71) 윌리엄 케논, 「웨슬레 신학」, 17-20.

72) 워커, W,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3인 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376.

73) 조종남, 「요한 웨슬레신학」, 21.

74) 위의 책.

75) 윌리엄 케논, 「웨슬레 신학」, 28.

76)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8.



다.<sup>77)</sup> 종교적 상황 역시 참으로 개탄할 만했다. 칼빈은 당시의 교회를 이렇게 말했다.

“세상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모든 것을 풍부히 가지고 있고, 가공할 권세로 무장하고 있는 원수의 발아래 짓밟혀 있다.”<sup>78)</sup>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교권체제는 법도 구속도 없이 무질서한 상태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과 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기관이 되어 버렸다. 칼빈 당시의 교회들은 세속적인 모든 악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참으로 교황의 전횡은 세속군주의 전횡보다 더 악한 것이었다. “주교들은 자기들의 교구를 단지 수입의 원천으로서만 보았으며 자신을 반쯤은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sup>79)</sup>

이처럼 당시의 종교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 교회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 정치, 종교,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인본주의적 시대로 타락 부패 갈등만이 가득 찬 하나님의 주권이 요청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개혁운동의 불길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했다.

## 2) 체험적 배경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의 한 모임에 갔다.<sup>80)</sup> 여기서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단지 기분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다. 웨슬리는 이날 저녁에 회심 사건이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오히려 회심의 사건을 기대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는

77)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8.

78) John Calvin, 「시편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시편 123:3 주석.

이정구,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론 비교 이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1999): 9에서 재인용.

7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정흠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13.

80) evernd John Wesley, A.M., ed. Nehemiah Curnock, 8vol,

London: the Epworth The Journal of the Press. 1960, 475. 이선희,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33집(1997): 22에서 재인용.

낙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기도 모임에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의하여 계획될 수도 없고 예측될 수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와 자비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사건이다.<sup>81)</sup>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전쯤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작용하여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는 그 분이 ‘나의’ 죄들을 바로 나의 죄들을 가져가 버리셨고, 나를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이미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sup>82)</sup> 여기서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손수 직접 행하시는 구원활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의 구원론 형성의 간접적 배경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학문연구 시절을 들 수 있고, 직접적 배경으로는 급작스런 개인적 회심의 배경을 들 수 있다.<sup>83)</sup> 칼빈은 어려서부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엄격히 자라났고 인근 지방의 귀족 가문의 몇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 이러한 어려서의 배경은 칼빈이 도덕적 학문적 소양 발달에 안정감을 주었다.<sup>84)</sup> 칼빈은 몽테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시 유명했던 ‘인문주의’에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칼빈은 가까이 지내던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개혁사상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개혁사상을 수락하려는 경향을 가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는 그때까지 로마교회

81) 이선희,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33집 (1997): 22.

82) Journal, No14, 475. 이선희,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논문집」 제33집(1997): 22에서 재인용.

83) 이정구,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론 비교이해,” (신학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11.

84) 프랑시스 웬델, 「칼빈주의 신학 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22.

의 성벽 안에서 자랐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주는 영향을 섭취해 왔다.<sup>85)</sup>

그러면 칼빈이 언제 회심하였는가? 정확한 회심시기는 알 수 없고 또한 회심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도 많지만 1533년 8월과 1534년 5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칼빈 자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문서는 회심 날짜에 대해서 어떤 날짜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의 구원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쳤을 흥미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처음에 나는 너무나 고질적으로 교황주의 미신에 열성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회심으로 그 질혹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사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온순한 성격이 되게 하셨다.”<sup>86)</sup>

여기에서 칼빈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칼빈이 그 당시까지 구할 수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저작들을 읽었다는 직접적인 암시와, 올리브땅과 볼마르 같은 이들이 칼빈을 개혁 운동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시도와 칼빈이 그들의 시도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암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심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칼빈은 회심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하여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한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였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후일 칼빈의 생애와 사상 속에 영향을 끼쳐 그의 신학 형성에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칼빈의 회심사건 역시 사람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예측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자비에 근거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웨슬리와 칼빈의 회심사건 모두 하나님의 행동이요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웨슬리와 칼빈의 체험이라 함은 인간의 감각적이요 감각적으로 체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지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 믿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

85) 이종성, 「칼빈」, 19.

86) Calvin, 「시편주석 서문」, 161.

### 3) 신학적 배경

웨슬리는 말하기를 “나의 기반은 성서다. 그렇다. 나는 성서 고집쟁이다. 나는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따른다.”<sup>87)</sup>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자신을 “한 책(성서)의 사람”<sup>88)</sup>이라고 자칭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성서에 최고의 권위를 두었다. 웨슬리는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그릇됨이 없다고 믿었다.

“성서야말로 시금석이다. 그리스도인은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것이 참이든지 상상이든 지간에 모두 성서에 의해 시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 법과 증거에 호소하고 모든 영은 이로써 시험해야 한다.”<sup>89)</sup>

웨슬리는 그 당시 영국 내에 만연되어 있던 계몽사상 그리고 인본주의적 교회 풍토를 쇠신하고 17세기와 18세기 개신교의 맥을 잇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었다. 웨슬리는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전통과 일치하였으나,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는 독특한 면이 있다.<sup>90)</sup>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웨슬리 신학을 “경험의 신학”이라고 부른다.<sup>91)</sup> 그가 자신의 설교집 서문에서 “참되고 성서적이며 체험적인 기독교”를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했듯이 그는 신학을 늘 성서에서 시작하여 늘 체험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성서와 체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은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호응하는 것으로서의 체험이다.<sup>92)</sup> 그렇다고 이 체험이 성서의 권위를 우위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웨슬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성령의 조명아래 체험을 통하여 설교의 현장에서 그 교리에 대한 실재적 설명을 함으로 신약성서의 신앙을 참되게 표현하려고 했다.<sup>93)</sup>

---

87) John Wesley, Journal (June 5, 1766). 유진형,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과 그 현대적 의의,” 51에서 재인용.

88) John Wesley, Letters IV, 299.(May 14, 1765), 위의 책에서 재인용.

89)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ed. Thomas Jackson II. (London: John Mason, 1829), 484. 위의 책, 52에서 재인용

90) 조종남, 「요한 웨슬레신학」, 58.

91) 위의 책.

92) 위의 책.

웨슬리 신학의 기초와 원천은 성서와 경험이었다. 웨슬리는 지성과 논리에 호소하기보다는 성서와 경험에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서에 더 권위를 부여하여 모든 전통과 경험도 성서의 말씀에 종속시켰다. 웨슬리의 신학적 근본배경은 바로 성서였음을 말하고자 한다.

칼빈의 신학은 역시 예정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정에 대한 신학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 칼빈은 중요한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어거스틴(Augustin, 354-430)주의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학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서방의 기독교는 분열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선택과 유사한 “예정”이 신학적 체계를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저서에서 칼빈은 선행과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삶과 죽음의 “이중적인 예정”을 주장하고 있다.<sup>94)</sup> 그의 신학의 출발점은 神 중심적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원시 기독교의 교부들은 히브리사상에서 받아들인 예정의 개념을 보존하고 변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은혜의 절대적 지고성을 설정하여 그 교리를 발전시켰다. 예정론에 관해서 칼빈 자신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칼빈도 시인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해명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sup>95)</sup> 따라서 이것은 예정을 믿는 신앙인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예정의 문제를 깊이 연구할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영역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칼빈은 예정의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sup>96)</sup>

93) 조종남, “선교2세기에서 본 웨슬레 신학의 전망,” 「회갑기념논문집」(서울: 기성출판사), 205.

94)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11.

95) 위의 책, 12.

9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igion, 941-942.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12에서 재인용.

칼빈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것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선택(예정)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계획안에서 그의 은총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론 역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웨슬리 신학의 특징

웨슬리의 신학적인 유산을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칼빈의 예정론에서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한 점이다. 웨슬리는 이론적인 신학자이기보다는 복음 전도자요 순회설교자였으며 설교와 실천에 기반을 둔 신학자라고 볼 수 있다.

“역사는 18세기의 요한 웨슬리의 전도 운동은 ‘복음주의 부흥’이라고 말한다.<sup>97)</sup>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셨다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죄에서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분명 웨슬리의 구원론은 철저히 복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자들이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정론을 주장한 반면, 웨슬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以信稱義의 구원관이다.

그의 구원론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고 중보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의 출발점은 신학적인 Paradox를 풀기 위한 논리가 아니고 오직 성서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며 그와 비교할 神은 없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이며 그의 역사에 달려 있다고 했다.<sup>98)</sup> 즉, 성서에 바탕을 둔 신학이었다. 구원을 향한 웨슬리의 열정은 실존적이라는 평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말에 대한 웨슬리의 역점은 언제나 우리가 현재 여기서 (now and here)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신학의 특징은 은총의 역사를 미래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맡겨 놓고

97) 조효근, 「세계기독교평사」(서울: 도서출판 들소리, 1988), 264.

98) 스나이더,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73.

체념하는 듯한 종교개혁자들에 반하여 보다 실존적인 관점에서 현재 여기 (now and here)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였다는 데에 있다.<sup>99)</sup>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믿음을 정의함에 있어서 웨슬리는 믿음이란 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생명 없는 차디찬 동의나 이론과 같은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동적인 개념을 말하였다.<sup>100)</sup>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전 과정인 선행의 은혜와 칭의(중생)와 성화와 그 열매도 오직 전적으로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웨슬리가 선행으로 성화된다는 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답하여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나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간증하여 왔다. 실로 이 위대한 진리는 한편이 다른 한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믿음은 의인의 경우와 똑같이 성화의 유일한 조건이다.”<sup>101)</sup>

라고 하였다. 믿음은 인간의 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전능자의 작업에 의하는 것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에 의하여서만 창조되는 것”<sup>102)</sup>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의인이나 성화나, 구원의 전 과정이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므로 인간의 아무 공로도, 아무 능력도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고 받으신 고난에 있으며, 또 모든 능력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99) 조종남, 「웨슬레 신학연구」 (부천: 서울신대출판부, 1977), 66.

100) 위의 책, 30.

101) John Wesley, *The Standard Sermons of John Wesley*, 2 vols.

(London : Epworth Press, 1956), 2:452. 유진영,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과 그 현대적 의의,” 13에서 재인용.

102) G.C. Cell, 「요한웨슬레의 재발견」, 156 157.

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함을 말한다. 웨슬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자신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웨슬리는 구원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내리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보았다.

“믿는자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에 즉각적이고 필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즉각적이고 필수적으로 내포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영혼에 불어넣어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던 숨결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위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입니다.”<sup>103)</sup>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에서의 인간의 역할은 그의 설교 “하나님께로 난자의 위대한 특권” 위의 설교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위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의의가 없는 반응이요 순종이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성령의 공로로 되는 것이다.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보다도 죄에서의 구원이다. 그 최종 목표는 실제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 성화이다. 그는 이 성화를 “하나님께 대한 순결무구의 사랑”이라고도 말한다. 우리의 사상과 말과 행동이 이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웨슬리에 의하면 이 완전 성화, 즉 구원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즉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웨슬리는 선행하시는 은혜(Preventing Grace)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Convincing Grace) 칭의(중생)하시는 은혜(Justifying Grace) 성화시키시는 은혜(Sanctifying Grace) 그리스도인의 완전(the Christian Perfection) 영화(Glorification) 등의 순서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완

---

103) John Wesley,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Works」, Vol. I, 442.



전은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죽음과 함께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고 보았다. 웨슬리의 이러한 구원의 순서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적이고 연속적  
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웨슬리의 특징이다. 은혜는 영적 순례의 각 단계마다  
찾아오며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은혜인 것이다.

### 3. 칼빈신학의 특징

칼빈신학의 특징 중 하나가 성서중심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  
키며,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인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칼빈은 성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당한 교리에 관해서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우리가 말씀으로써 지도  
받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sup>104)</sup>

칼빈의 믿음에 관한 지식의 신앙적 규범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성서는 그에  
게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며 규범이었다. 칼빈 신학의 특징은 “전체로  
서의 성서”의 이해와 실제적 동기에서 촉진된 것이다. 그는 성서에서 이해되  
는 하나님, 말씀, 은총, 거룩을 보고 계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으  
려 했다.<sup>105)</sup> 칼빈에게 있어서 성서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  
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이다. 그는 인간행위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세상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았  
다.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학이다.

104) 김명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5), 42.

105) 박봉량, “칼빈의 예정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출  
판부, 1978), 129.

칼빈의 신학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있다. 즉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은 이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중심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또한 그 만물의 주인이 이끄는 데로 피조물이 생성, 변화, 소멸됨을 수용하는 자세이다.

칼빈신학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예정론이다. 칼빈의 예정론은 흔히 칼빈주의의 '중심교리'로 불려진다.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예정(Predestination of God)이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데, 그 결정이 각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한다.<sup>106)</sup> 각 사람의 구원이나 저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예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구원에 관계한 예정인 것이다. 예정에 관에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작정)이라고 부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오셨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혹시 영생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간은 양자 중 어느 목표에 도달하도록 창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사람을 가리켜 그가 생명에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라고 말한다.”<sup>107)</sup>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을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인간이 버림을 당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106)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 54.

10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II, 21.5. 이정구,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구원론 비교이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47에서 재인용.

#### 4.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의 일치점

지금까지 웨슬리신학과 칼빈신학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제 이 두 신학의 일치점을 찾으려 한다. 분명 하나의 근원(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출발하였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일치점이 있을 것이다. 이 일치점을 찾으려 한다.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은 각각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확립된 신앙체계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었고, 그 결과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인 자유의지마저도 상실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일치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에게는 예수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에서 일치한다. 이 둘 모두 성서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믿음의 관한 지식의 신앙적 규범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를 성경으로 증명하려 했다. 그들은 어떤 권위보다도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 자유주의 혹은 인본주의에 반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면에서도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함이었다.<sup>108)</sup>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의롭게 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의인론에 있어서도 일치한다. 웨슬리 자신이 말한바, “나는 과거 27년간 의인론에 있어서 칼빈과 터럭만큼의 차이도 없다.”<sup>109)</sup>고 했다. 이 둘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웨슬리와 칼빈 모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한

---

108) 유진형,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과 그 현대적 의의,” 9.

109) G.C. Cell, 「요한웨슬레의 재발견」, 161.

다. 웨슬리와 칼빈 모두 이것은 성령의 주요 활동이며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유지된다고 본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혜는 은혜이다. 한 가지 상황에 한 종류의 은혜를, 다른 상황에 다른 종류의 은혜를 가질 수 없다. 은혜는 동전과 같아서 하나님은 은혜를 조금씩 찢어서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 은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뿐이다. 은혜는 영적 순례의 단계마다 찾아오며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 동일한 은혜이다.

## 5.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의 차이점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에 있어서 서로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예정론에 대해서만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sup>110)</sup> 이 선택이란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은 마치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다고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도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무조건 유기(reprobation)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믿는 한, 유기(遺棄)도리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의 내용이나 흐름과는 전혀 상치된다고 웨슬리는 말한다.

이 유기(遺棄)의 도리에 상치되는 것을 성구를 열거하면서 설명을 한다. 창 3:17, 4:7, 신 7:9-12, 11:26-28, 30:15-19, 대하 15:1-2, 스 9:13, 욥 36:5, 시 145:9, 잠 1:23-29, 사 65:2-15, 겔 18:20-23, 마 7:26, 11:20-24, 12:41, 13:11-12, 22:8 등이 유기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마 22:9, 막 16:15, 눅 19:41, 요 5:34, 행 17:24이하, 롬 5:18, 10:12, 딤후 2:3-4, 4:10, 약 1:5, 벧후 3:9, 요일 4:14 등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마 18:11, 요 1:29, 3:17, 12:47, 롬 14:15, 고전 8:11, 고후 5:14이하, 딤후 2:6, 히 2:9, 벧후 2:1, 요일 2:1-2 등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110) 존 웨슬리,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 「총서」 제9권, 315-391.

오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속죄하셨다고 말한다.<sup>111)</sup>

또한 이 유기는 “그리스도는 그들(정죄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 죽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질상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원래 가지지 못했는가?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희생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에게는 믿을 대상이 없다. 하나님이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믿도록 창조하시었다면 그의 절대능력으로서도 그리스도가 그대의 죄를 죄속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실 수 없다.<sup>112)</sup>

이 유기의 도리는 성경(신 5:29, 시 81:11-14)에 무수히 나타난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해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그의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성실하게 선포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실 은혜를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성에 위배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sup>113)</sup> 이렇게 본다면 선택과 유기의 도리는 하나님의 성실성과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 유기의 도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에도 위배된다고 웨슬리는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며 그 선의에는 한정이 없으며(시 52:1)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시 145:9)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되실 것인가? 라고 반박한다.<sup>114)</sup>

웨슬리는 예정론자들이 “만일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영광을 독차지하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아니하는 자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능력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영광은 결국 하나님이 홀로 차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115)</sup>

---

111) 존 웨슬리,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 「총서」 제9권, 323.

112) 위의 책, 332.

113) 위의 책, 334.

114) 위의 책, 336.

115) 위의 책, 339 340.

또한 “한번 믿은 사람은 끝내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성경에 한곳이 없으며 오히려 첫째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도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겔 18:24에서 볼 수 있으며, 둘째로, 좋은 양심과 믿음을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음을 뎀전 1:18-19에서 볼 수 있으며, 셋째로는, 좋은 감람나무라 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에 접붙임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으며(롬 11:16-22), 넷째로 참된 넝쿨에 속한 그리스도의 가지라도 떨어질 수 있고(요 15:1-6), 다섯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오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도, 미끄러져 다시 오염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 있고(벧후 2:20), 여섯째로는, 성령을 받고 그 열매를 가진 자라도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 있으며(히 6:4-6), 일곱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 있으며(히 10:38), 여덟째는 계약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도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 있다.(히 10: 26-29)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웨슬리는 말한다.<sup>116)</sup>

그러나 웨슬리는 분명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간이 행하는 모든 義도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홀로 인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함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성립됨을 말한다. 웨슬리가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어떠한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전체구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웨슬리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칼빈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다. 이 둘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통치자로 계시하심을 믿었다.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예정과 구원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사상으로 이해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인 사랑, 정의 등을 연관지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칼빈의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달리 웨슬리는 누구든지 예수

---

116) 위의 책, 353 356.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웨슬리와 칼빈사이에는 예정론의 유기설을 둘러싸고 큰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 VI. 웨슬리의 선행 은혜의 신학적 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선행의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이며 아울러 구원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역할을 한다. 선행의 은혜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의 길에 발을 디디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활 속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뜻이다. 먼저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선행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관한 모든 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한 능력이 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위한 도움이 있다. 질병을 위한 치료가 있다.” 바로 이것이 선행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인 것이다. 선행의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 디디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대하여 응답하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첫 기회를 준 것이다.

인간의 구원의 근거와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는 복음의 시초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런 공적 없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우리들의 헌신의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한다거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 앞서서 역사하시고 매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이처럼 선행의 은혜는 전 우주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한다. 땅 끝까지 이르



러 복음의 증인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 불멸의 한 상속자가 전체지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 Ⅶ. 결 론

지금까지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에서 첫 번째 단계인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웨슬리의 선행하시는 은혜에 관해 다시 한번 일면요약 하도록 하겠다. 웨슬리의 선행의 은혜 개념을 오해한 결과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가 자연인의 능력과 의지의 완전한 자유를 믿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선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느 정도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는 인간의 원죄를 주장함으로써 자연적인 인간의 불가능을 지적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주장함으로써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총의 역사 아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거기에 응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인간의 노력(일)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6장 29절에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의 눈을 밝혀 주실 때, 인간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죄의 상태에 대하여 자각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마음)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는 빛이 아침에 동 터 오듯이 비추는 그 빛이 비쳐졌을 때, 그 빛-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인간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스스로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단순한 은총 곧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서 이를 행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선한 의욕으로 하여금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하시는 것이다. 고전 1장 31절의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 그는 불가능을 행하신다. 그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 종노릇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형상을 잃어 버렸을 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우리가 소망이 없이 비참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오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실히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함을 깨우쳐 주신다. 현재의 우리의 노력이나 미래의 우리의 수고들이 그 모든 것을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뿐이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매 순간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중심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인간 안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구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하심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러한 신앙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초래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많던 적던 간에 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느끼게 된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구원을 위한 첫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인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원죄를 지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

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선행의 은혜는 소망의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에는 인간의 죄악의 흑암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인간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선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선행의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선행의 은혜는 한낮의 밝은 빛은 아니지만 새벽의 첫 미명이며 우리를 죄악에서 일깨우는 빛이다. 그 빛은 생명이요 진리이다. 진짜 빛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완전한 빛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공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도망칠 수 없이 죄에 갇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행의 은혜'의 메시지를 갖는 감리교인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던 웨슬리의 메시지와 일맥 상통한다. 결코 우연히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선교현장의 전망이 어렵다고들 말한다.'<sup>117)</sup> 하지만 그것은 복음자체의 생명력의 한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무시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도록 운명 지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가능한 대로 더 많은 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신다. 인간 영혼의 깊은 흑암의 밤에도 여명이 있을 수 있다. 생명의 문-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다. 죄의 속박과 질병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향해 그 빛은 말한다.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

117) 이원규, "한국교회의 성장과 그 둔화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신학과 세계」 34호 (1997), 참조.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전 세계를 교구로 간주하는 사람이다. 선행하시는 은혜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하고 적극적인 의지이다.

# 참 고 문 헌

## 1. 일차 문헌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정흠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1) 존 웨슬리 설교

Wesley, John.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_\_\_\_\_. "Original sin", Works, Vol. I.

\_\_\_\_\_. "Salvation by Faith", Works, Vol. I.

\_\_\_\_\_. "On Conscience", Works, Vol. III.

\_\_\_\_\_.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Works, Vol. III.

\_\_\_\_\_. "The Witness of Our Own Sprite", Works, Vol. I.

\_\_\_\_\_.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Works, Vol. I.

\_\_\_\_\_. 「존 웨슬리 총서」 제1권. 마경일 송홍국역. 서울: 선교출판사, 1978.

\_\_\_\_\_. 「존 웨슬리 총서」 제2권. 박봉배, 조종남역. 서울: 선교출판사, 1978.

사, 1978.

## 2) 존 웨슬리의 기타 자료집

- Wesley, John.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 송홍국의 3인역. 「존 웨슬리 총서」 제9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0.
- \_\_\_\_\_. 「존 웨슬리의 365일 묵상집」. 이병희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1.
- \_\_\_\_\_.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 웨슬리복음주의협의회편역. 서울: 도서출판 광림, 1992.
- \_\_\_\_\_. 「요한 웨슬레설교선집」. 조종남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8.

## 2. 이차 문헌

### 1) 한글단행본

- 김명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5.
- 김홍기. 「세계기독교의 역사 이야기」. 서울: 예루살렘, 1992.
- \_\_\_\_\_.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박봉량.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 송홍국. 「요한 웨슬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_\_\_\_\_. 「웨슬리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이성주. 「칼빈신학과 웨슬리 신학」. 서울: 도서출판 잠언, 2002.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_\_\_\_\_.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_\_\_\_\_. 「웨슬레 신학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77.

조효근. 「세계기독교평사」. 서울: 도서출판 들소리, 1988.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9.

한철하. 「고대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 2) 번역 서적

니셀, W.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셀, G.C. 「요한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스나이더.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워커, W.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외 3인 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원쿠프, M.B. 「칼빈주의와 웨슬리신학」. 한영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웬델, 프랑시스. 「칼빈주의 신학 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편저. 서울: 기  
독교문화사, 1986.

캐논, 윌리엄. 「웨슬레 신학」. 남기철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하퍼, 스티븐. 「존 웨슬리의 메시지」. 김석천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8.

\_\_\_\_\_. 「웨슬리의 메시지」. 신광준역. 서울: 도서출판 웨슬리, 1986.

## 3) 논문

이선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제10집, 2000.

\_\_\_\_\_. “John Wesley의 선행은혜 개념에 대한 소고”. 「신학과 현장」 제11  
집, 2001.



\_\_\_\_\_.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논문집」 제33집, 1997.

이원구. “한국교회의 선장과 그 둔화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신학과 세계」 34호, 1997.

조종남. “선교 2세기에서 본 웨슬레 신학의 전망”.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기성출판사.

#### 4) 학위 논문

심재구. “다종교사회와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호서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2000.

유진형.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과 그 현재적 의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5.

오세호.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구원개념”. 「목원대학교대학원 신학과」 1996.

이명재. “기독교 대한감리회내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신조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2001.

이영한. “존 웨슬리의 구원관의 재구성”.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1997.

이정구.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구원론 비교이해”.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9.